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말씀 (알도의 편지)

by Aldo McPherson



2007년 2월 23일, 금요일

여러분은 우리가 천국에 함께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더 이상 병이 없으며, 모두가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오셔서 그의 신부를 데려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신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죄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신부는 거룩하여야 합니다. 엄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해야 합니다 ([계시록 3:14-22](#))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2007년 2월 24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때를 정말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이를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 말을 믿어 주세요,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천국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오직 사랑만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제발 저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명을 내려 놓아야만 합니다. 제발 지금 하십시오!

2007년 2월 26일, 월요일

당신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을 경고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위해 준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거기는 완전히 준비된 혼인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으세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모두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엄마, 엄마는 하나님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누가 나가서 세상에 그를 증거할까?